

## 산업자원부, 기술거래 활성화 도모

앞으로 기술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중 일정한 기술거래관련 실적이 있는 사람은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술거래사 등록을 위한 기술거래 관련 실적 기준이 10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술거래사는 앞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상담·자문 및 지도와 기술의 매매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술거래사 등록을 위한 실적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거래사등록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기술거래 계약을 3회 이상 성사시킨 실적 ▲기술·평가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에 3회 이상 참여한 실적 ▲국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정책수립에 3회 이상 참여한 실적 ▲기술 수출입 업무를 3회 이상 수행한 실적 ▲상기 내용을 복합적으로 수행해 그 실적이 각호 1에 상당하는 경우 ▲기타 한국기술거래소 사장이 상기 실적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교수, 연구원, 거래·평가기관 종사자중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 기술거래관련 실적이 있는 사람은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기술거래사의 업무수행방법·범위 및 절차 등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기술거래소가 정해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기술거래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기술거래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기술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거래소내 전문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매달 신청된 거래사 등록신청서를 심사해 기술거래소사장 명의의 등록증을 교부하게 됐는데, 기술거래소는 향후 기술거래사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술이전·거래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거래사 지정은 지난 1월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와 기술매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기술거래소에 등록토록해 기술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거래 분야의 다양성 및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해 기술거래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사 등록기준을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술거래의 역사가 짧고 기술거래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험제도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그 실적을 기준으로 등록케 하고, 향후 기술거래사의 엄격한 운영을 위해 사전교육 및 실무수습제도 도입 등 보완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기술거래사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부여되는 여타의 국가자격증과는 달리 배타적인 영업권이 부

여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술거래소를 통해 기술거래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금지원 등

기술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거래업무에 진입장벽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 산업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 확대

그동안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으로 한정됐던 외국인직접투자 출자목적물이 내년부터 인터넷 콘텐츠 전자상거래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과 국내부동산으로 확대된다. 또 주식교환(Stock Swap)을 통한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단순 취업 및 체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말소요건이 추가되는 등 외국인투자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 상정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일 외국인이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행위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 이하일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벤처기업이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로의 주식을 출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외국인이 이미 소유한 주식을 출자하는 것은 직접적인 외국자본의 유입이 없는 국내 주식교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최근 들어 현금의 수반 없는 주식교환을 통해 국가간 M&A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AOL과 타

임워너 등이 주식교환을 통한 M&A의 대표적 사례.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촉진되고 M&A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술도입 계약이 직접투자 형태로 이뤄져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전 단일 투자자에 한정된 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 복수 투자자가 일정한 지역에 유사업종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유사업종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이나 고용인원의 합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그동안 외국인투자자가 트럭공장과 부품공장을 함께 설립하는 경우, 각각의 공장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트럭공장과 부품공장과 같은 유사업종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도 두 공장의 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상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다.

산자부는 이밖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및 허위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경우도 등록말소 요건으로 포함시켰다.

## 전력용변압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품목으로 지정

전력손실 절감효과가 뛰어난 전력용 변압기 등 5개 품목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에 추가로 포함됐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용 변압기, 자동판매기, T-5 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등 5개 품목을 인증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기존의 14개에서 19개로 늘어나게 됐다.

산자부는 신규 인증대상 품목 중 전력용 변압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T-5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전자식안정기는 대상품목으로는 선정하되 먼저 KS규격을 제정한 후 기술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 추가인증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 받았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자체평가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올해 3월 전력용 변압기 등 5개 품목을 추가인증 검토 품목으로 선정할 바 있다.

이번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전력용 변압기는 비정질 자성재료(아몰피스 메탈)를 사용한 유입변압기로서 효율이 일단점 지변압기는 98.3%이상, 3상 변압기는 97.7%이

상인 것을 말한다. 아몰피스 변압기의 경우 지난 '97년 한전의 배전선로 주상용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으며 현재 1만3천대가 설치, 운전 중에 있다.

업무용·상업용 빌딩 및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대용량의 아몰피스 전력용 배전 변압기는 지난해 개발돼 현재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아몰피스 변압기는 무부하손 절감 효과가 뛰어나 설치시 전력용 변압기의 무부하손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 전문가들은 "현재 한전의 주상용 변압기 및 업무용·상업용 변압기를 아몰피스 변압기로 대체하는 경우 전력용 배전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5TWh의 무부하손 손실을 8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발전원가(59원/kwh)로 환산한 아몰피스 변압기의 무부하손 절감효과는 연간 약 2천3백60 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아몰피스 변압기의 설치를 통해 최대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배전손실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저손실 배전기자재의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기존의 일반형 주상변압기를 G6 및 아몰피스를 사용한 저손실변압기로 대체키로 했다.

한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상변압기에서 발생한 전력손실량은 1천6백41GWh로 전체 배전손실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 韓 - 美, 中企 · 벤처 교류 활성화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및 기술박람회 개최 추진 등 한-미간의 벤처·중소기업 교류가 대폭 활성화 된다.

중소기업청은 미국 중소기업청과 양국 중소기업 간의 포괄적 제휴 강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코리아벤처센터(KVC) 개소식에 맞춰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한-미 양국간 중소기업공동위원회(가칭)가 설립돼야 이를 통해 기업간에 상업적 제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미간 합의된 사항에는 구체적으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공동기술 연구개발 △상호기

술지도 협력 △무역사절단 교류 및 기술박람회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코리아벤처센터는 중기청이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인근에 설립하는 벤처 지원 전문기관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이달중 중기청장을 단장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벤처기업 세계화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양국간에 사실상 모든 합의가 이뤄져 서류상 체결조약만 하면 된다. 그 시기는 10월 말이 될 것”이라며 “다만 국정감사가 같은 시기에 이뤄지면 MOU 체결이 다소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달청, 전자입찰 공인인증 서비스 실시

조달청은 한국증권전산(대표 김경중)과 전자입찰 공인인증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조달청은 내달부터 운영되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전자서명 등 공인인증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면 전자서명을 통한 입찰서라도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한 문서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 시점확인 서비스를 통해 입찰서의 송수신 시간도 확인해 준다.

전자입찰의 사용자 등록은 우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입찰 홈페이지(www.ebid.go.kr)을 참조하면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비스를 통해 전자입찰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정에는 △시범운영 기간중 무료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등록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내

용도 포함됐다.

앞서 조달청은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에 대한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 개발을 이달말까지 완료한

뒤 다음달부터 3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나 1억 미만의 시설공사 입찰 등 소액입찰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입찰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중소기업청, 수출금융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청은 최근 지난 7월말부터 실시한 수출금융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기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금융 지원사업 확대 개편의 주요골자는 지원대상 기업을 기존의 연간 300만달러 이하에서 연간 수출실적 700만달러(로칼 거래액 포함)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보험공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용대출 대 보증부 대출 비율(3:7)을 기업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비율을 확대했다.

보증방식에 있어서는 회전보증 이외에 개별보증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출이 지속적이지 않는 업체의 경우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지원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적용(2배), 보증료를 우대(20% 할인) 등을 통하여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중기청의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확대 시행은 지금까지 운영재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일부(300억원)를 활용해 실시했으나 2001년 예산(안)에 신규로 소요재원 500억원이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수출확대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우선 해소해 연말에 집중될 중소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특허청, 특허정보기술 사이트 소개

특허청은 최근 출원인들이 세계 각국의 특허기술정보를 한눈에 접할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에 대해 중복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정보기술 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했다.

이들 인터넷 사이트는 특허기술정보센터(www.kipris.or.kr), IBM(www.patents.ibm.com),

유럽특허청(ep.espacenet.com), 미국특허청(www.uspto.gov), 일본특허전자도서관(www.ipdl.jpomiti.go.jp), 세계지식재산기관(pctgazette.wipo.int) 등이 있다.

이 사이트들은 공통적으로 키워드, 출원인, 발명자, 출원번호 등을 이용해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에 익숙치 않아 이같은 검색도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각 검색사이트들의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개인적인 질문에 자세히 응답해 주는 사이트를 특허청은 따로 소개했다. 이 사이트는 특허청 심사관들의 연구 모임인 특허검색연구회(www.patsearch.or.kr)다.

특허청은 “지금까지 상당수 발명가들이 자신의 특허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검색치 않고 기술개발에 착수함으로써 중복투자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에 따라 먼저 특허 출원한 다른 사람에 의해 결국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시간, 비용,

인력 등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동안 특허청에서 심사한 출원은 16만942건 중 7만6,378건, 47.46%가 부실특허로 등록거절(취하, 포기 포함) 됐다.

특허청은 “기술개발 검토 단계에서 미리 각국의 특허기술을 면밀히 검토해 자신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중복개발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며 또 “자신의 기술에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해 특허기술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조했다.

## 국제상품분류 20년만에 개정

국제상품분류가 20년만에 크게 바뀌어 해외진출 기업의 상표권 관리에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출판, 인터넷 접속서비스 등 정보통신 관련 34개의 신상품, 서비스가 국제표준명칭으로 추가 분류됐고,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208개의 신상품, 서비스가 국제표준명칭으로 확정, 분류됐다.

특허청은 상품 및 서비스표 분류의 국제적 표준을 정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제18차 니스동맹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돼 니스분류 7판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는 지난 '57년 프랑스 니스지역에서 채택,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표준명칭 및 분류다. '63년 제1판이 발간된 이후 약 5년 간격으로 부분개정이 이뤄지다 올해 크게 손질됐다. 이번에 확정된 니스분류 8판은 200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우리 나라는

니스협정에 지난해 가입했다.

이번 니스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보다 인터넷과 관련한 신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을 결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이다. 34가지의 컴퓨터, 정보통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됐다.

전자출판 및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등이 새로운 상품명으로 인정됐으며 온라인 광고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 등이 새 서비스명을 달았다. 정보통신 분야 외에도 208개의 상품 및 서비스를 새 국제표준명칭으로 인정 분류됐다.

따라서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화산업을 포함해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기업은 이같은 변경된 내용을 예의주시해, 회원국의 법제변경에 따른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법제가 변경되는 2002년전까지 변경된 국제표준에 따라 브랜드관리 전략을 서둘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EM·NT 마크 제품 수출호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도입된 자본재 품질인증 제도가 국내 수요창출 및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제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전국 6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EM(Excellent Manufacturing)·NT(New Technology) 인증 제품의 '99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11억달러, 매출은 70% 증가한 2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을 포함한 234개 정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실적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9% 늘어난 2,27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EM·NT인증업체 가운데 112개 업체는 총 2,384억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았으며 219개 업체는 1,48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기계류 부품 소재를 포함한 자본재의 국산개발에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일시 : 2000. 11. 14 ~ 11. 17    ● 장소 : 서울무역전시장